

과학기술 혁신 새로운 挑戰

— 不景氣극복, 연구개발투자 11.3%늘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단기간 안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성장의 원천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래서 IMF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도 그 투자는 중단되거나 삭감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부처별로 편성된 새해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총액은 3조3천3백5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3%가 증가했으며 과학기술처의 새해 예산도 1조8백91억원으로 8.6% 늘어났다. 늘어난 새해의 과학기술예산을 부문별로 집중 조명해본다



景 鍾 哲
(과학기술처 기획관리실장)

과학기술은 국제경쟁의 원동력

외환위기 해결을 위해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예산 절감을 하는 등 초긴축 정책을 펴고, 기업·가계 등 각 경제 주체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도, 인수·합병, 불황, 실업 등으로 인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국가와 국민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선진국 진입을 위해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대로 이류

내지 삼류 국가로 주저앉고 마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금 중요한 일은 과거의 비효율적인 경제·사회 시스템을 타파하고 개혁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성장의 원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다. 98년에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더 이상 경제발전의 종속변수가 아니며, 오히려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고 또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성장의 원천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 있어서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

정부는 60년대 후반부터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

확대,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기초과학 진흥 및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 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97년은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 97년 4월에는 2002년까지 향후 5년동안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법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였으며, 동법 제3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97년 12월에 확정·시행에 착수하였기 때문이다.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시행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은 국가 전략적 핵심과학기술분야에서의 독창적 혁신역량의 확보를 위한 실천 계획으로써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중·단기간 내에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기술능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국가적 역량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동 계

확은 연구개발투자 확대, 중점국가 연구개발사업 추진, 민군겸용기술개발 등 10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개발투자 확대부문에는 많은 논란 끝에 2002년까지 정부연구개발투자를 정부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시킨다는 구체적인 투자확대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다. 동 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은 과학기술처를 주축으로 정부 각 부처가 부문별 계획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기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연구개발에 3조3천3백51억원

금년도 정부 과학기술예산 편성의 가장 큰 의미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편성된 첫 해의 예산이라는 점이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5개년 계획상의 투자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2배 이상의 증가율로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1>의 정부 부처별 연구개발예산 현황을 보면 '98 정부연구개발예산 총액은 3조3천3백51억원으로 전년대비 11.3%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입 감소로 인해 정부예산의 긴축 편성으로 정부예산(재정규모) 증가율이 5.8%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예산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는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예산이 증가한다면 2002년에는 정부예산의 5%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 총예산(순계)에서 연구개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7년의 3.05%에서 98년에는 3.12%로 약간 높아졌다. 최근 정부 내에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그 투자규모도 3조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크게 증대되었는데, 주요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처가 1조88억원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하고 있고, 국방부가 5천8백56억원으로 17.6%, 통상산업부가 5천7백12억원으로 17.1%, 교육부가 3천백7억원으로 9.7%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처가 다양해지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규모가 대폭 확대되어가는 만큼 정부 부처간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실질적 조정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장관회

의'를 통하여 중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종합조정 및 부처간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과학기술처 예산 8.6% 증가

정부 연구개발투자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학기술처의 98년 예산은 97년 대비 8.6%가 증가된 1조88백91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3백91억원과 재정융자특별회계 5백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역을 <표2>에서 보는 것처럼 기능별로 살펴보면 과기처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구개발지원은 1조88억원으로 9.2%가 증가되었는데, 이 중 특정연구개발사업은 3천5백80억원으로 14%가 증가되었으며, 기초과학연구사업은 천백65억원으로 6.2%, 출연연구소 육성지원은 4천

<표1> 부처별 연구개발예산 현황

(단위 : 억원)

부 처	'97예산	'98예산	증가율(%)
과학기술처	9,237(30.8)	10,088(30.2)	9.2
국 방 부	4,776(15.9)	5,856(17.6)	22.6
통상산업부	4,965(16.6)	5,712(17.1)	15.0
교 육 부	3,073(10.3)	3,107(9.3)	1.1
농업진흥청	1,971(6.6)	2,060(6.2)	4.5
보건복지부	1,209(4.0)	1,598(4.8)	39.2
중소기업청	761(2.5)	898(2.7)	18.0
해양수산부	979(3.3)	892(2.7)	△8.9
농 립 부	758(2.5)	718(2.1)	△5.3
건설교통부	463(1.5)	499(1.5)	7.8
환 경 부	386(1.3)	468(1.4)	21.2
재정경제원	394(1.3)	361(1.1)	△8.4
정보통신부	319(1.1)	346(1.0)	8.5
산 립 청	292(1.0)	322(1.0)	10.3
기 타	395(1.3)	429(1.3)	8.6
총 계	29,978	33,351	11.3
*정부예산대비 비중(%)	3.05	3.12	

- 주) 1. ()는 부처별 점유율(%)
 2. 각 부처 연구개발예산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금액
 3. 정부예산 : 순계 총예산을 기준

9백96억원으로 6.9%, 원자력연구 개발은 3백31억원으로 5.0%가 증가하였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

정부의 본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82년 착수 이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활동을 선도해 오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98년도 예산은 97년에 비해 14%가 증가된 3천5백80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사업의 내용도 보다 전략적이고 다양해졌다.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의 본격적 시행과 함께 중점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착수하며, 우리나라의 독창적 과

학기술의 싹을 창출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시도된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에 대한 예산도 대폭 증가시켰다.

〈중점 연구개발사업에 착수〉

97년 4월 제정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98년부터 향후 5년동안 추진되는 중점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혁신 추진을 통해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첫 해 예산으로 3백억원을 확보하였다. 항시성(限時性), 범부처성(汎部處性), 대형·집중성(大型·集中性)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등 6대 중

점분야에서 신규 과제를 발굴하거나 기존 과제중에서도 기준에 맞는 과제를 포함시켜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사업의 성과를 단기간내 효율적으로 산업화하기 위해 장기저리자금의 우선적 용자,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여, 연구참여인력의 해외 연수·기업 파견 및 전문 연구요원 배정 등 각종 지원시책을 병행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사업 주관부처간의 협의체인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중점연구사업을 최종 심의·선정 하므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국가연구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개발체제를 정착해 가며, 선정된 국가연구과제별로 산·학·연 협동으로 전담연구공동체(사업단)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창의적 연구개발 대폭 확대〉

97년에 처음 시행되어 기존의 연구개발 수행방식에 새로운 변혁을 가져온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에 대한 투자도 4백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는데 테마중심 연구사업에는 3백58억원, 개인중심 연구사업에는 50억원을 각각 투입할 것이다. 이 사업은 새로운 개념의 창의적 기술을 탐색하고 독자적인 과학기술의 싹을 창출하는 등 우리의 연구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

2001년까지 특정제품 또는 기술분야에서 세계일류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농림

〈표 2〉 과학기술처 예산의 기능별 내역

(단위 : 억원)

사 업	'97예산	'98예산	구성비 (%)	증·감	
				증·감	%
연구개발지원	9,237	10,088	92.6	851	9.2
- 특정연구개발	3,140	3,580	32.9	440	14.0
- 기초과학연구지원	1,097	1,165	10.7	68	6.2
- 출연(연)육성지원	4,671	4,996	45.9	325	6.9
- 원자력연구개발	315	331	3.0	16	5.0
- 한·영, 한·미협력	14	16	0.1	2	12.5
과학기술진흥	294	303	2.8	9	3.0
- 과학기술행정	200	202	1.9	2	1.2
- 과학기술전시	85	91	0.8	6	6.8
- 과학기술자문	9	10	0.1	1	7.5
과학기술진흥기금조성(재특)	500	500	4.6	-	-
계	10,031	10,891	100.0	860	8.6

〈표 3〉 특정연구개발사업 예산내역

(단위 : 억원)

세 부 사 업	'97예산	'98예산	증·감
중점연구개발	-	300	300
창의적연구진흥	308	408	100
선도기술개발	1,318	1,219	△99
국책연구개발	1,179	1,275	96
과학기술세계화	184	246	62
공동연구시설구축	81	55	△26
연구기획평가	70	77	7
계	3,140	3,580	440

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여 9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선도기술개발 사업에는 정부 재정에서 총 2천3백91억원(과기처 2천2백19억원)을 투자하여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2000년대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첨단제품 핵심요소기술 개발사업에는 주문형 반도체 개발 등 6개 과제에 천백억원, 원천기술의 자력개발 및 선진화를 위한 기반기술개발사업에는 신기능 생물소재 개발 등 9개 과제에 천2백9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적 현안과제 해결과 미래국가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82년부터 추진해온 국책연구개발사업에는 전년 대비 8.2%가 증가한 총 천2백75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생명공학기술개발, 핵심 S/W 등 정보전자기술개발, 방재기술·SOC지원기술·CFC 대체물질 개발 등 공공복지기술 개발, 중형과학로켓·실험용 중형과학위성 개발 등 항공·우주기술개발,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등 해양기술 개발 등 총 29개 과제(신규 9개 포함)가 전략적으로 추진된다.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첨단기술 개발력의 근원임에도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문인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사업에는 97년에 비해 6.2%가 증가된 천백65억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먼저 대학의 우수연구인력을 특정 분야별로 조직화하여 연구비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창조적 기초과학연구와 산업수요가 연계된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45개 우수연구센터(SRC, ERC) 육성에 4백50억원이 투자되며, 이공계 교수의 창의적 개인연구인 핵심전문연구과제와 학제간 공동연구인 특정기초연구과제를 탁월성 위주로 지원하는 목적기초연구사업에 4백35억원이 배정된다.

또한 지방대학의 우수연구개발자원과 지역별 우위 산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육성사업에 80억원을 투입하여 15개 시·도에 각 1개소씩 15개 센터를 신규로 지정, 총 29개로 확대함으로써 지방대학이 지방과학기술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연구시설의 확보와 공동시설·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지원에 백47억원, 대학의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성화 장려사업에 36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과학기술인력의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탁월성을 중시하는 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세계 10위권 내의 연구중심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15개 학과 5천3백30명의 재학생 : 박사 천6백60명, 석사 천2백70명, 학사 2천4백명) 교육·연구에 필요한 도서확충사업과 테크노경영대학원 운영 등에 7백13억원, 광주과학기술원을 첨단과학기술 위주의 국제대학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5개학과 5백9명의 재학생(박

〈표 4〉 선도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단 계 별	계	재 품 기 술	기 반 기 술
1단계사업 (92년부터)	11개	차세대자동차, 광대역 ISDN(정통부수행) ※완료 : 고선명TV('94), 신약의약·신농약('97)	정보·전자·에너지첨단소재, 첨단생산시스템, 신기능생물소재, 환경공학, 신에너지, 차세대원자로 ※완료 : 차세대반도체('96)
2단계사업 (95년부터)	8개	주문형반도체, 차세대평판표시장치, 의료공학, 초소형정밀기계, 고속전철	초전도토포카막, 감성공학, 민군겸용
합 계	19개	9개 과제	10개 과제
정부예산 (단위 : 억원)	2,391	1,101	1,290

〈표 5〉 기초과학연구 지원 예산내역

(단위 : 억원)

세 부 사 업	'97예산	'98예산	증·감
우수연구센터육성(SRC/ERC)	429	450	21
목적기초연구	405	435	30
지역협력연구센터(RRC)	50	80	30
특성화 장려	36	36	-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지원	148	147	△1
연구기획평가	29	17	△12
계	1,097	1,165	68

사 백49명 포함)에 대한 학사사업과 산·학 협동연구단지 조성사업 등에 백71억원, 세계 정상 수준의 기초 과학연구능력 확보를 위한 고등과학원 운영에 31억원, 그밖에 과학기술 연수·고급두뇌 초빙 활용에 백44억원 등 총 천59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밀도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고급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확보하기 위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신규로

3억원을 배정하여 금년에는 3개의 센터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출연연구기관의 일류화·전문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 제고는 물론 각 기관이 고유분야에서 일류화·전문화된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를 도입·시행하면서, 기관별 장기비전과 경영기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자율경영체제를 강화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데, 98년에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0개 출연연구기관(부설기관 7개 포함)에 대하여 기관고유사업비·시설사업비·일반사업비 등에 97년 대비 6.9%가 증가된 4천9백96억원이 편성되었다.

먼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기관고유사업인 KIST-2000 연구 등 81개 사업에 2천9백64억원이 지원되는데, 과제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연구풍토가 정착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최상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연구시설의 확보, 노후 시설의 수선 및 첨단장비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핵융합 특수시험동 건설, 첨단과학센터 건설 등 54개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비로 천2백9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연구원의 우수한 연구개발성과가 국내외적으로 권리화되어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취득 경비도 계속 지원된다.

원자력기술개발 역량과 안전성 강화

원자력의 고유·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97~2006년)이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 계획에 의거 향후 10년동안 7개 분야 32개 과제에 총 2조3천8백55억원이 투입되어 중소형 원자로,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술 등을 중점 개발해 나가게 된다. 이의 재원은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조2천백75억원과 정부출연금 1조천6백80억원으로 총당될 계획인 바, 출연금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3백31억원, 원자력병원 연구사업 지원 24억원 등 7백83

<표 6> 출연연구기관 육성 예산내역

(단위 : 억원)

세 부 사 업	'97예산	'98예산	증·감
출연(연)육성	4,847	5,173	326
- 기관고유사업	2,415	2,531	116
- 학사사업	594	620	26
- 일반사업	417	426	9
- 시설사업	968	1,209	241
- 차관원리금	244	187	△57
- 외화대출원리금	209	200	△9
연구개발성과확산	15	15	-
합 계	4,862	5,188	326
출 연 금	4,672	4,996	324
자 체 수 입	190	192	2

<표 7> 원자력 관련 예산현황

(단위 : 억원)

세 부 사 업	'97예산	'98예산	증·감
원자력연구개발	315	331	16
-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	307	322	15
- 원자력 국제공동연구	8	9	1
원자력연구소 운영	378	428	50
- 기관고유사업	283	305	22
- 시설사업 등	95	123	28
원자력안전기술원 운영	59	66	7
- 기관고유사업	58	64	6
- 시설사업 등	1	2	1
원자력병원 연구사업 지원	15	24	9
- 기관고유사업	5	10	5
- 시설사업 등	10	14	4
합 계	767	849	82

※ 98년도 원자력 연구개발기금 규모 : 8백95억원

역원이 계상되어 있다. 원자력 이용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64억원을 투입, 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하여 전국도 환경방사능 측정소(12개 지점)를 철저히 운영하고, 방사능 환경기술관련 연구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3백억

국내 연구개발자원의 한계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의 세계화사업에는 작년 대비 24.5%가 증가한 2백99.7억원이 투자된다. 첨단기술 원천지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단계에 고효율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연구·협력센터를 확대하고, 특히 러시아·중국 등과의 첨단기술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등 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에 53억원, 국제공동연구사업에 92억원을 계상하였고, 기술선진국에 접근하기 위한 과학기술협력자금 운영에는 25억원이 반영되었다.

신기술 창업·과학기술대중화 추진

98년 예산에는 신기술창업 지원과 과학기술문화 창달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신기술창업을 국가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창업 종합 지원체제인 신기술창업지원단을 발족하고, 그 운영에 15억원을 지원하며, 아울러 이들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억원을 배정하여 한국과학기술원 내에 첨단기술사업화센터의 건설을 추진하므로써(99년 완공 예정) 창업 또는 기업화 초기의 각종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연구소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첨단연구기관들과 과학기술교육기관이 입주해 있는 대덕연구단지는 신기술 창업기업을 배양,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창업과 관련한 핵심기술과 인력지원은 물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시설, 기술정보 등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이해를 촉진하고, 창의성·합리성·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국내외 문화행사의 개최, 과학기술문화 정보망 구축 등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

해 한국과학문화재단 등 과학기술관련단체에 69억원을 계상하였다. 아울러 초·중·고교생들에 대한 과학기술의 산 교육현장으로 애용되는 과학관의 기능 및 활동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전시 및 교육사업에 35억원, 서울과학관 활성화사업에 8억원, 그리고 3개 지방과학관 전시품 지원사업에 12억원을 반영하였다.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 제고

지금까지 98년 과학기술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 과학기술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대폭 반영됨으로써 연구개발예산의 상당한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2002년까지 정부예산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상당한 수준으로 연구개발예산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투자규모의 증가와 병행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반노력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종합조정·자원배분 및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연구주체간의 경쟁체제 확립과 연구단계별 목표관리시스템 및 전주기적 연구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산·학·연간 연계를 강화하여 공공부문 연구개발성과의 기업이전 및 기업화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⑤7

〈표 8〉 과학기술 세계화관련 예산현황

(단위 : 억원)

세 부 사 업	'97예산	'98예산	증·감
과학기술 세계화	218	274	56
- 국제협력기반조성(특정)	92	153	61
- 국제공동연구(특정)	92	92	-
- 국가간기술협력(과학재단)	9	12	3
- 과학기술국제협력(STEPI)	25	17	△8
과학기술협력자금 운영	22	25	3
-한·미 공동협력자금	8	9	1
-한·영 공동협력자금	6	7	1
-한·독 기초과학협력자금(재단)	8	9	1
합 계	240	299	59